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점심은 장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점심과 오후찬양예배는 '가정의 주일'로 없습니다. 다음 주일 2부 낮예배 대표 기도는 김종영 집사님입니다.
3.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청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합니다.
4. 오늘 오후찬양예배는 '청년부 주관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3월 3일(주일) 주일낮예배(2부) 후 외부 강사를 모시고 '제직 및 사역자 세미나'를 가집니다. 제직과 각 위원회 위원장 및 교사 등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2월 18일	2월 25일	3월 3일	3월 10일
예배기도(2부)	이준화 집사	김종영 집사	신태식 장로	이문희 집사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식사담당	장영자 권사 가정	가정의 주일	양은임 권사 가정	박숙이 권사 가정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
3.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티(함안), 예수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운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성 시 교 독 교독문 124번(사순절 1) 다 갈 이
 *경 배 찬 송 37장(통 37장) 다 갈 이
 *참 회 기 도 다 갈 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양과 기도

찬 송 353장(통 391장) 다 갈 이
 대 표 기 도 1부인도자, 2부이준화 집사

봉헌과 말씀

성 경 봉 독 마 12:21-28 인 도 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 영 진 목 사
 봉 헌 기 도 인 도 자
 말 씀 선 포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2) 허 영 진 목 사
 마 무 리 기 도 허 영 진 목 사

친교와 축복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결 단 송 620장 다 갈 이
 *축 도 허 영 진 목 사

(*는 일어섭니다)

이
달
의
말
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김진규 전도사

경 배와 찬 양 찬양인도 : 청년부 다 갈 이
 여 는 기 도 인 도 자
 특 별 찬 양 누 구 든 지
 성 경 봉 독 눅 7:11-17 김진규 전도사
 말 씀 선 포 '돌봄' 김진규 전도사
 기 도 김진규 전도사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결 단 찬 송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다 갈 이
 주 기 도 문 다 갈 이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 요 예 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허영진 목사
 마 15:21-28 '소원대로 되는 믿음'

금 요 기 도 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새 벽 기 도 회 새벽 5:30 <하늘문인만>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삶의 여유

산다는 게 힘겨운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그렇듯, 삶은 고된 여정이고 수많은 사
 건들이 한데 어우러져 중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버거운 하루하루 인
 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차 잊고
 사는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다보니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요원(遙遠)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 쌓여만 가는 피로사회 속 현대인들의 모습에서 삶의 행복을 논하는
 것은 오히려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져야
 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부추겨왔기에, 그래서 등 떠
 밀리듯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고단한 삶을 이어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힘겹습니다. 하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삶의 여유를 가져보
 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여유 없이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바른 생각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공간이 없고, 이기적 마음이 휘두르는 욕망에 방임된 채 살
 아가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타인을 밀쳐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부끄러
 움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참다운 여유란,
 세상은 각박하다는 말 한마디의 체념, 혹은 냉소로 살기보다는 세상은 살맛나는
 아름다움이 어디서나 있을 수 있음을 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엔 세상이 냉소의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칭찬의 대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여지없이 낭패입니다.

사람에게 여유가 있다는 것은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에서 오는 차이만이 아닙
 니다. 다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죠. 벼랑이처럼 여유만 부리다가 낭패를 당하
 는 삶은 분명 나쁘지만, 시간에 쫓겨 개미처럼 생각 없이 사는 삶도 정작 바람직
 한 것은 아닙니다. 흰 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그날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
 니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시지 않고서는 베길 수가 없기에 반갑습니다. 시간의 흐
 림을 느끼고, 자신이 누군지를 생각할 여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C. S. 루이스의
 말이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땅속에서 묵묵히 겨울을 견디는 씨앗으로 생각하라.
 정원의 주인이신 이가 정한 때에 꽃 피기를, 드디어는 세상에 나가기를, 드디어
 는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한 씨앗으로 생각하라." 비록 지금도 추위가 가시지 않
 은 겨울이지만, 따뜻한 봄기운을 기대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Written by 허영진